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가족돌봄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 13세~39세에서 9세~39세로 확대됨에 따라, 7일부터 28일까지 가족돌봄청년가구로 의심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세~64세)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9세~39세)이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재가돌봄, 가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접 29가구를 방문해 돌봄 필요성을 확인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안전한 밤거리
조성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정읍시가 안전한 밤거리 조성 과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보안등 정비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시는 올해 가로·보안등 시설 확충·정비에 15억원을 투입하며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우범·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4억3,000만원을 들여 신규 가로등 170등을 신설하고, 노후·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에 2억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7억8,000만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2016년부터 도입한 도로조명관리시스템(DB)을 활용해 가로등·보안등의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QR코드가 내장된 표찰번호를 부착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고장을 신고하면 진행 사항과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양염업사 재생 민관상생 투자협약

고창군 · 동명기술공단, 투자협약 체결... 복합문화관광지로 조성

고창군이 민간 설계업체와 손잡고 (구)삼양염업사를 복합문화관광지로 변모시키는 국토부 민관상생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주)동명기술공단(대표이사 신완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동명기술공단은 국내최고의 건축설계업체로, 해리면 소재 (구)삼양염업사의 역사·문화·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앞두고, 삼양염업사 재생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은 전문성을 통해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고창군은 올해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시범사업, B-루키즈 지원사업, 청년마케팅 UP카데미, 글로벌 청년워킹홀리데이 등 8건의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삼양염업사는 우리나라 근대 염전 산업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역사적 산업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현재는 유향화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삼양염업사의 근대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관광트렌드에 맞춘 예술이 있는 복합문화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동명기술공단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살려 염업사 전시관, 염전 박물관 등 염업사의 역사를 다룬 역사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천일염 소금을 활용한 소금카페, 미디어아트 전시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전개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 12일까지 군 주요 사업장 30개소 점검

정화영 부안군 부군수는 지난 5일 민선8기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을 점검하고 추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정화영 부군수는 부안읍에 위치한 부안 자연마당 진입도로 조성, 부안 해돋이니스타운 조성,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푸드엔 레포츠타운 조성,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내대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어 6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과 관광지 주요시설, 향토기업 등 30개소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화영 부군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일자리 · 교육 ·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사업 추진

부안군은 지난 5일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2027년까지의 부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 주거공간 확보 방안과 부서 간 연계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부족한 주거공간과 높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자체 유사 사업을 단계적·연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2025년 부안군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12개 부서가 총 118억6,300만원을 투입해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올해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시범사업, B-루키즈 지원사업, 청년마케팅 UP카데미, 글로벌 청년워킹홀리데이 등 8건의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창출신 · 지역구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고창군과 고창출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지역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고창출신 및 지역구 국회의원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출신 안규백·이성운·안태준·김남희·정을호 국회의원,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심 군수는 간담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고창군이 거둔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과 고창출신(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이룬 주요 성과로는 △삼성전자의 신원력산단 부지 매입 및 용역리조트의 종합테마파크 부지 매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000



억원 투자 유치 △신원력산단 첨단기업 3개사 1900억원 투자 유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선정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성과와 역대 최대규모의 국가예산 확보 등이다.

고창군은 2025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혁신과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초 · 중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확인 나서

정읍시가 올해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보건소와 학교가 협력해 신입생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해 집단면역을 강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생(2018년생) △중학교 입학생(2012년생)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에 완료해야 하는 △DTaP 5차(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IPV) 4차(소아마비) △MMR 2차(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백신 추가 접종을 마쳐야 한다.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에 시행하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또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6차

△일본뇌염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며 여학생의 경우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누리집에서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문자 안내를 제공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우선 상담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8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 공

통대표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단,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